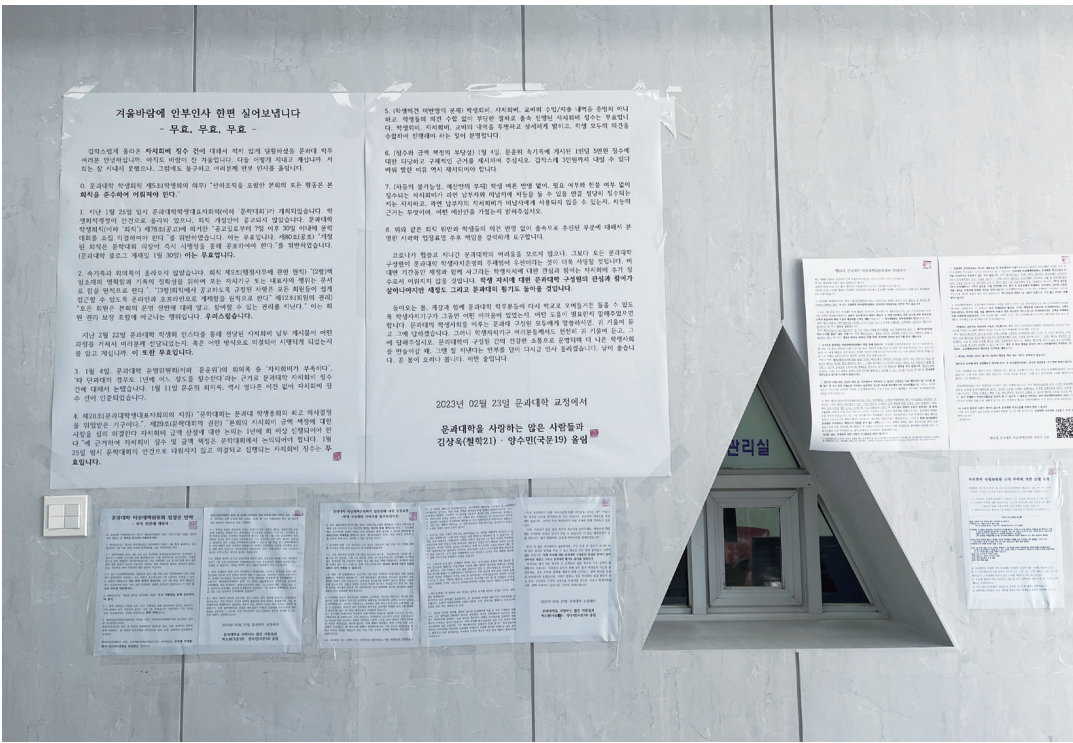


문과대학 학생회비 절차논란

장비술 기자 eva6155@khu.ac.kr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서울】문과대학(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학생회비 징수 문제로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22일 문과대 비대위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치회비 3만 원’을 징수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문과대학운영위원회(문운위)에서 지난 1월 4일 처음 논의돼, 일주일이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의결된 내용이다. 해당 공지가 알려지자 학생회비 징수 과정이 잘못됐으며 ‘무효, 무효, 무효’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문과대에 붙었다. 대자보에는 ▲학생회비 징수가 문운위에서 의결된 점 ▲징수 및 금액 책정의 부당성 ▲차등의 불가능성 ▲예산안의 부재를 근거로 학생회비 징수가 무효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대자보를 부착한 김상욱(철학 2021), 박도현(국어국문학 2019) 씨는 “문과대 학생회칙(회칙) 제29조 3항에 근거해 자치회비와 관련된 내용은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문학대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자치회비를 징수하는 이유와 금액이 3만 원으로 선정된 근거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회비를 징수한다면 기존의 총학생회(총학) 자치회비와 문과대 자



학생회비 납부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문과대학 게시판에 부착됐다. (사진=정혜원 기자)

치회비를 낸 사람들 사이의 차등 대안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과대 비대위 측은 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먼저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지에는 (학생회비를) 자치회비로 잘못 명시했다”며 “자치회비는 총학에서 분배 받는 금액이며, 비대위가 징수하려는 금액은 학생회비다”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대자보에서 언급된 ▲학생회비 징수가 문운위에서 의결된 점 ▲징수 및 금액 책정의 부당성 ▲차등의 불가능성 ▲예산안의 부재를 모두 반박했다. 지난 1월 25일 개정된 문과대 회칙에 따르면, 예산은 ▲행정실비(교비) ▲총학 분배금 ▲기타 수익금(자치회비)으로 구분되고, 비대위가 징수하는 금액은 기타 수익금인 ‘자치회비’에 속한다. 그러나 총학 회칙에서 자치회비는 총학에

서 분배 받는 금액으로, 학생회비는 단과대학(단과대) 혹은 학과 학생회에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 문과대 한은찬(철학 2022)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총학 회칙 제9조 3항에 따라 총학 회칙과 단과대 회칙이 충돌할 때는 총학 회칙을 따라야 한다”며 “학생회비의 경우 문학대회에서는 의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네이버 블로그에 계좌이체증을 게재하며 학생회비 징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된 계좌이체증에 따르면, 지난해 문과대 학생회 계좌의 총보유액은 4,723,617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197,982원 줄어든 금액이다. 총학 분배금 역시 ▲2020년 2,648,300원 ▲2021년 2,237,725원 ▲2022년 2,005,373원으로 점차 감소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문과대 학생회비를 낸 학우와 총학 자치회비만 낸 학우 간에 ▲금액 ▲품목 등의 차등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문제가 된 회칙 용어인 자치회비와 학생회비는 다음 임시 문학대회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 부재에 대해서는 “수입에 맞춰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의 방식을 사용해 학생회비 징수 이전에 예산안을 기획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비대위장은 “이번 사건이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 자치와 학생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과대 비대위는 지난 2월 22일 공지가 나간 이후 계속해서 학생회비를 납부 받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정확한 납부 기한은 없으며 상시로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금연구역 흡연 사례 민원 늘어

김관수 기자 okb8888@khu.ac.kr

【서울】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대학교의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학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서울캠퍼스 흡연구역은 ▲대운동장 ▲생활과학대학 인간교실 앞 ▲노천극장 주차장 ▲구이과대학 동관 뒤 ▲미술대학 앞 ▲의과대학 앞이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특히 대운동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박창하(사학 2018) 씨는 “대운동장 흡연구역이 붐빌 때는 바깥으로 나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간접 흡연 피해를 받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흡연구역이 폐쇄된 푸른솔문화관에서도 흡연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푸른솔문화원과 가까운 세화원에 거주하는 A 씨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창문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냄새를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무관리처는 “금연구역 흡연이 발견될 경우 흡연구역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금연구역 내 흡연 문제는 태도와 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다”고 밝혔다.

[공통]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우정장학(가계곤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03. 01 (수) ~ 2023. 03. 31(금) (신청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신청자격

1. 2023-1학기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교내장학 미신청자)
2. 2023-1학기 국가장학금(1차, 2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0~8구간 보유자
3. 2023-1학기 복학등필생은 이전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월성적) 2.0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장기현장실습 등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 2023-1학기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신청방법

info21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3-1학기 우정(가계곤란) 장학금 신청 (신청 후 장학 신청 확인을 조회하여 장학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지급방법

1. 학자금 미대출자 : Info21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2. 공무원학자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 학생지원센터(장학)에서 직접 상환처리

3. 한국장학재단 외 기타 대출자는 학생 계좌로 지급(학생이 부모님을 통하여 직접상환)
- 지급시기

2023년 5월 또는 6월 중 예정
-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2023-1학기 장학금 전액 수혜자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자(국가근로,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3. 2023-1학기 휴학 및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자)
4. 기타 장학규정 장학금 지급 제한(징계 등)에 해당하는 자
- 문의전화

1. 서울C 학생지원센터(장학) : 02-961-0045~0046
2. 국제C 학생지원센터(장학) : 031-201-3055~3059